

자유로우면서 인간적인 '돈키호테' 발레 전막 공연

광주시립발레단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발레 중 하나인 '돈키호테' 전막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10월 7~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7일 오후 2시·7시, 9일 오후 2시30분·7시30분, 10일 오후 2시)

광주시립발레단은 2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내 시립 오페라극장스튜디오에서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박경숙 시립발레단 예술감독과 크리스토프 안무가, 박승유 지휘자, 김해민 조안무가, 키티 예술감독 등 연출진을 비롯해 키티리와 비질역에 쿼드캐스팅된 강은혜·보그단, 강민지·박관우, 공유민·우건희, 조희원·이택영이 참석했다.

이번 시립발레단 '돈키호테' 공연은 특별하다. 저작권 개념이 부족하던 때 유럽 공연의 안무와 음악을 차용했던 것과 달리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다. 작품은 안무자인 크리스토프의 안무로 재구성했으며 의상, 무대장치, 미디어아트 등 광주시립발레단만의 유일한 작품을 준비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광주시립발레단 '돈키호테' 무대는 초연 공연이라 할 수 있다.

크리스토프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프로덕션 디렉터와 발레마스터로 박경숙 감독이 직접 섭외한 세계적인 안무가다.

크리스토프는 "기존 4막 3시간 30분 가량의 공연을 3막 2시간 안팎으로 줄여, 짧은 시간 안에 스토리와 테크닉을 모두 전달하려 노력했다"며 "작품을 준비하면서 모든 버전의 안무를 찾아냈다. 그 중 가장 마리우스 쾨프의 '돈 키호테' 작품을 베이스로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인공 키티리와 비질 역의 경우 틀 안에 가두지 않고 무용수들이 자유롭게 감정을 표출하도록 했다.

키티리 역의 조희원은 크리스토프의 안무에 대해 "주연배우들의 테크닉을 많이 요한다"며 "자유로우면서 인간적인 면을 많이 필요한 안무 구성이다. 특히 군

광주시립발레단, 10월7~9일 ACC 극장1...의상·무대장치·미디어아트 등 재구성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크리스토프 안무 맡아...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무가 많았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모든 배역이 캐릭터를 살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쿼드캐스팅은 무용수들의 연기처럼 고난도 연기에 따른 체력적 부담 때문이다.

발레 '돈키호테'는 17세기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원작을 토대로 했지만 몽상가인 돈키호테가 그를 따르는 산초판자와 늙고 둔한 말 로시난테의 모험담을 다른 원작과는 다르게, 이발사 비질과 사랑에 빠진 선술집 딸 키티리가 자신을 부자집 귀족 가마슈에게 시집 보내려는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이를 해결하는 기사로 등장한다.

이날 제작발표회에는 강민지(키티리 역), 박관우(비질 역), 노르보예프(돈키호테 역) 등이 시연 겸 리허설 무대를 선보였다. 안무가 크리스토프가 고객을 끄덕이자 시작된 리허설은 돈키호테 서재를 배경으로 하는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스페인의 어느 마을 광장으로 장면이 이동하며 무용수들은 섬세한 표정과 테크니컬한 무용을 펼쳤다. 안무가 크리스토프의 날카로운 눈빛 디렉팅도 인상적이다.

협연은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박승유)가 맡는다. 박 지휘자는 "스페인 춤곡의 특징을 살려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일 것"이라며 "눈과 귀가 함께 즐거운 한번 보기 아쉬운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숙 예술감독은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선보이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의상, 화려한 안무, 무대장치 등 보는 재미가 있는 광주시립발레단만의 무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4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시립발레단 단원들이 발레 '돈키호테'를 시연 하는 모습.

'김대중 그리고 세계 지도자의 평화사상'

오늘 전남도청서 김대중 민주평화 학술회의

김대중 민주평화 학술회의 '김대중 그리고 세계 지도자의 평화사상'이 2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와 김대중추모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정의, 평화, 인류, 기후위기'에 관련한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펼쳐진다.

이번 학술회의 1부에서는 김성재(전 문체부 장관·사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이 '인류와 지구를 살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코스모 민주주의와 글로벌 평화'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또 황보윤식(전 인하대 교수) 함석헌 사상 연구소장의 '후광학 창시를 위한 김대중 사상체계의 거시적 분석', 김우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평화를 위한 세계질서의 기초-그 외면적 조건들', 이운정 전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연구 교수의 '김대중의 세계평화지도자의 메모리얼파크'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그밖에 '민주주의와 불평등'(최자영 전 부산외대 교수), '분쟁을 넘어 공생으로-동북아 정체성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김준형-한동대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분쟁을 넘어 공생으로-황해를 영구평화지대로'(원익



김성재

선·원광대 평화연구소 소장), '김대중과 미국'(이재봉·원광대 정치외교학과 평화학 명예교수) '다시 읽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최경환 전남대 초빙교수, 20대 국회의원) '김대중과 유럽정치'(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이사장은 "김대중대통령의 평화는 '적극적인 정의의 평화'이고, 김대통령은 평화는 정의와 사랑이 입맞춤하는 결과로 실현된다고 했다"며 "피스 메이커(Peace Maker)를 넘어 피스빌더(Peace Builder)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철학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있는 '평화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행사에서는 김선이 명창, 박시양 무형문화재, 최고은 밴드, 정용주 산울림예술촌 등의 공연으로 평화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하린 개인전, NFT아트 체험 '숨은 나 찾기'

30일까지 광주 갤러리 D

'NFT아트를 직접 체험하다.' 대체불가능한 토큰인 NFT가 예술과 결합한 형태인 NFT아트는 현재 미술계의 가장 큰 관심대상 중 하나다.

NFT 작품을 선보이는 김하린 작가 두 번째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광주 갤러리 D에서 열린다. 김 작가는 가상 공간에서 3D로 구현한 미디어 작품을 NFT아트로 선보이는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도 이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진행한다.

'숨은 나 찾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생각하는 인간, 호모사피엔스를 자신이 창조한 플렉스비트(FlexBit)이라는 디지털 캐릭터에 투영한다. 플렉스비트는 작가의 페르소나이자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다채로운 사교의 추상적 집합체로 컬러풀한 색감과 이목구비가 없이 표현된 형태가 특징이다.

작가는 디지털 영상 속에 나타나는 구름은 에너지의 원천이며 작품의 선명한 색채와 춤추는 듯한 입체적인 동작들은 현대인의 고뇌와 즐거움, 구속과 자유로움, 배타성과 포용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장치라고 설명한다.

28일(오후2시·3시·4시) 세 차례 전시장에



'Stage P'

서는 가상의 공간에서 창조된 캐릭터 플렉스비트를 AR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열린다. 온라인에서 전시되는 NFT작품은 현재 거래가 가능하다. (opensea.io/PassionIsland_By_HaLin) 전남대학교 대학원 아트앤디자인 테크놀로지

지과정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김작가는 2021년 'Positive 섬'을 주제로 첫 번째 개인전을 가졌으며 전남대 아트앤디자인테크놀로지 협동과정 메타버스 국제 기획초대전 등 그룹전에 참가했다. 체험 전화 사전예약 010-5512-954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청소년 국악 공연과 이야기 '신인풍류자랑'

31일 문화재단 전통문화관...광주예고 안희선 학생 등

청소년 국악 공연과 이야기 무대를 융합한 무대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진행하는 '신인풍류자랑'이 그것.

프로그램은 오는 31일 오후 5시 30분에 펼쳐지며 마당극 배우와 방승으로 활동하는 지정남 씨의 사회로 진행된다.

첫 번째 문은 박진영 전 TBN 교통방송 아나운서(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가 '내 말의 주인은 나다'를 주제로 문을 연다. 박 대표는 언어를 통해 타인과 관계 맺는 방법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전남대 객원교수(인문학 박사)로 활동 중인 박 대표는 '단박에 통하는 전달력 수업', '결정적 말실수' 등 다수 책을 펴냈다.

이어지는 무대는 광주예술고등학교 2학년 예비명인 3명이 무대에 오른다. 안희선 '신채동류 거문고 산조', 송가원 '지영희류 해금 산조', 위민준 '박



송가원



위민준

중선류 아쟁 산조'를 선보이며 장단과 고수는 이왕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악장이 함께한다.

한편 오는 9월 7일 '신인풍류자랑' 세 번째 무대는 청춘 소리꾼 김희재 씨가 출연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간을 칠하는 사람' 야외공연으로 만나요

9월9~12일 ACC 문화광장

5·18을 다룬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 야외공연이 추석 연휴 광주공연을 끝으로 올해 투어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번 공연은 객석이 움직이는 독특한 형식을 가미한 작품으로 기존의 공연과는 차별화된다. 극중 몰입감을 높여 관람객들과 5·18의 아픔을 공유하려는 취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대표작 '시간을 칠하는 사람'을 오는 9월 9~12일 오후 7시 ACC 아시아문화광장에서 펼친다.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일상 시민의 삶을 매개로 80년 5월 광주를 조망하는 작품으로, 이에 앞서 세종과 밀양(6월), 진주(8월) 등에



서 공연된 바 있다.

야외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눠 선을 보인다. 1부는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으며 2부는 햇빛, 연막탄 등 특수효과를 매개로 극의 긴장감을 높였다. 또한 관람석으로 이동했던 이동식 객석을 주인공 영식이 기억을 회

상하는 무대세트도 활용해 야외공연에 맞는 형태로 재탄생시킨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이번 야외공연은 8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